

“독립운동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노형중학교 여학생 16명
일본총영사관앞서 시위
광복절 기념품 나눠주며
불매운동 동참 촉구 ‘눈길’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전국적으로 반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10대 여중생들까지 나서 일본산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제주시 노형중학교 3학년 여학생 16명은 15일 오전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광복절,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제징용 사과하라’, ‘독립운동 못했어도 불매운동 같이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경제보복 중단, 수출 규제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를 촉구했다.

부가운(16)양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를 오직 교과서와 모니터로만 접해는 학생으로서 과거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이렇게까지도 참혹했는지 몰랐다”며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자신들의 만행을 인정하지도



노형중학교 3학년 여학생 16명이 15일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사과와 수출규제 중단을 촉구했다.

이상국 수습기자

않고 외면하면서 되려 우리나라를 수출규제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때껏 일본이 해온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가 아닌 그저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짜 사죄는 사죄하는 당사자가 많이 아파야 한다는 말처럼 일본은 이를 인지하

고 하루빨리 진실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양은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등 정말 뜻깊은 해”라며 “광복절을 마냥 휴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상님들의 피·땀·눈물과 아직 풀어지지 않은 한을 곱씹으며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키우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날 집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제작한 광복절 기념 수건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불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기도 했다.

노형중 김동현 교사는 “어린 나이지만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6일 금요일 음 7월 16일 (8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20%	성 산	20%	20%
20%	고 산	20%	20%
20%	서귀포	20%	20%

주간예보

내일	맑음	25/32℃
모레	구름 많음	25/31℃

제주도는 무덥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24~26℃, 낮 최고 기온은 29~31℃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5:56	달뜨기 20:01
해지기 19:20	달지기 06:15
물때 만조 10:58	간조 05:49
23:48	17:3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 남부지역 불볕더위... 남원 34℃

태풍 영향 북·서부 30℃ ↓

일본을 관통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16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와 북서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이슬비 형태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위치에 따라 기온차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15일 낮 최고기온이 제주시 27.9℃, 고산

29.5℃를 기록해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인 반면 비 예보가 없는 서귀포(31.6℃)와 남원(34℃), 성산(30.6℃)은 무더운 날씨를 보인 것이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부는 강한 일사와 지형적 영향으로 오는 17일까지 31~33℃ 내외로 매우 무덥고,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며 “태풍이 지나가는 16일과 17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거나 맑겠다”고 예보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뱃길사랑 이벤트

목포~제주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가 ‘나라사랑, 제주뱃길사랑’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제주도로 향하는 교통운임을 할인해 주는 행사로, 씨월드고속훼리는 승용 차량 선적 비용을 기존임대비 20% 할인한다. 또 고급 객실(스위트룸·패밀리룸)을 추가로 5만원 가량 할인 지원한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칠십리 서귀포에 올린 “대한독립 만세”

초·중·고생 200여명
광복절 기념 플래시몹
“청소년들의 방식으로
나라사랑 표현해 의미”

“우리 청소년들도 어른 못지 않게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서귀포시 소재 샘물지역아동센터(센터장 오문심)와 서귀포시 지역 고등학교생(서귀포여고·서귀포고·남주고·제주외국어고)들이 칠십리 야외공연장에서 ‘8·15 청소년의 부활, 세 번째 이야기’ 행사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귀포시 지역 초·중·고등학생 200여명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군 애국가에 맞춰 같은 동작으로 플래시몹을 선보



15일 칠십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8·15 청소년의 부활, 세 번째 이야기’ 행사에 참여한 서귀포시 지역 청소년들이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여 시민·관광객들의 눈길을 잡았다.

또 사전 행사로 참여자들은 서귀포여고등학교 풍물동아리의 공연에 맞춰 광복 당시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기쁨을 노래하던 사람들을 재현하는 ‘8·15 퍼레이드’를

칠십리야외공연장·새연고 구간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샘물지역아동센터가 2017년부터 광복절에 이어오고 있는 플래시몹 행사는 센터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된 샘물스파크동아리를 중심으로 서

귀포여자고등학교, 서귀포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봉사단들이 연합해 개최되고 있다.

오문심 샘물지역아동센터장은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애쓴 순국선열들을 기억하자는 취지”라며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청소년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3년째 8·15 플래시몹 행사의 총 연출을 맡아온 이나경(서귀포여고 3) 학생은 “청소년들도 어른 못지 않게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우리 스스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샘물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 뮤지컬 갈라쇼 ‘예화’를 오는 17일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